

주 일 예 배

2019년 11월 24일

인도: 이규본목사

| | | |
|------------------------|--|--------|
| * 찬양 SONG OF PRAISE | | 다함께 |
|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 | 인도자 |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 다함께 |
| * 찬송 HYMN | 20장 | 다함께 |
| 대표기도 PRAYER | | 전행복전도사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골 3:15-17(Colossians) | 인도자 |
| 찬양 CHOIR | | 찬양대 |
| 말씀 SERMON |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Thanks to Heavenly Father ” | 이규본목사 |
| 헌금 OFFERING | | 다함께 |
|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 | 인도자 |
| 감사와찬송 | | 각셀별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 인도자 |
| * 찬송 HYMN | 489장 | 다함께 |
| * 축도 BENEDICTION | | 이규본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소식

- 오늘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오신 한분 한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1월 헌금송:** 11/24: 글로벌선교회 12/1: 바나바선교회
-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각 셀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 만찬:** 예배후 아래층(친교실)에서 만찬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 신학교를 위한 자선음악회:** 윤석진교수(Greg Yoon/ 아시아 3대 테너) 초청
1)일시: 12/8(주일) 오후 6시 2)장소: 뉴욕장로교회(43-23 37Ave. L.I.C., NY 11101)
초청장을 많이 전해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ERTS)가 개강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는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금주의 말씀

(11. 24. 2019)

본문: 골 3:15-17

제목: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7)

미국을 건설한 조상들이 뿌린 이 감사의 씨앗으로 미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숨은 신앙인의 기도와 감사하는 자들이 있기에 세계 강국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격 저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가나안 임성을 앞둔 백성들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총만해지는 비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히 10:25).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고 감사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행 16:25-26).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곧바로 기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옥도 쇠사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3.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몹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으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특별히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덕이 될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때 어떻게 말씀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일을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언행일치의 생활을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간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린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는데 참으로 살아온 것이 기적이며 오직 주님의 은혜이다.

올해가 시작 될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었으나 지나고 보니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를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고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산소망”의 말씀을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그렇다 죽었다가 살아나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를 죽이고 고난과 괴로움을 인내할 수 있다면 큰 유익이다. 잘 참고 인내하여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겼다면 아픔이나 고통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금년에 두 명의 어른과 한 아이가 세례를 받았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잘 길러 보고자 집을 샀다. 그리고 기쁨부음을 받은 직분자들이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다. 비난과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성실하게 곳은일을 맡아 잘 수행하고 있다. 예배를 꼭 드리고 주일성수하며 잘 섬기고 있다. 주의 종들이 모여 교회와 성도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사역자의 훈련을 잘 받고 있다. 신학생들은 공부하기도 바쁘게 봉사와 책임을 다하며 섬기고 있다. 정부에 허가를 신청한 신학교가 세워졌고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며 섬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다. 주일 학교가 잘 세워져가고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성장되어가고 있다.

1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사역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소수의 사람을 위하여 영어로 통역을 해왔다. 식사 후 성경공부와 셀 모임은 은혜의 시간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고백하고 싶다. (11242019)

2019년 기도제목

1. 말씀충만, 믿음충만, 성령충만, 지혜충만, 은혜충만, 권능충만 (행 6)
2. 내 집을 채우라 - 전도 (눅 14)
3.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엡 4)
4.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왕상 6, 학 1)
5. 주일학교, EM, Cell의 교육과 부흥을 위하여 (딤후 4)
6. GCTS와 ERTS의 발전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 이규본
- *행정전도사 : 현종영
- *교육전도사 : 최화숙, 전행복(EM)
- *전도사 : 박휘영, 한우연
- *장로 : 안석원 *권사 : 이재숙
- *안수집사 :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 *지휘 : 김명애 *반주 : 서난숙
- *찬양대 : 김남규, 박휘영, 현종영
이재숙, 이 윤, 장수자

예배시간 안내

| | |
|---------|----------|
| 주일예배 1부 | 오전 11:00 |
| 주일예배 2부 | 오후 1:00 |
| 주일학교 | 오후 1:00 |
| 새벽예배 | 월-토 5:50 |
| 금요기도회 | 오후 8:30 |
| 셀 모임 | 모이는 장소 |

미주안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산 소망으로 살라(벧전 1:3)

“Live with the Living Hope”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